

문법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

송 현 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문법을 논하는 것과 문법교육을 논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문법을 논한다는 것은 모어 화자의 내재적인 언어 규칙 체계로서의 이론을 논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법’ 자체가 아닌 ‘문법교육’을 논하게 된다. 이것은 ‘문법+교육’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인 개념으로서의 ‘문법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문법교육’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각자 다른 개념을 떠올리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문법교육’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가장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개념으로 ‘문법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지식 영역과 관련되는 내용들’이라고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단언하자면, 이러한 개념들이 모두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문법교육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도 어떤 의미로 표현을 한 것인지, 또는 청자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문법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1) 문법¹⁾ 이론 중에 이설들이 많은

1) ‘모어 화자의 언어 규칙의 체계’라는 의미로서의 문법

데 해석상 문제가 있는 내용이 문법²⁾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인지, 2) 문법 교과서 구성이나 내용 적용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3) 문법교육의 위상과 교육적 의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등 각자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하고 이해한다. 즉, 이와 같이 정리되지 않은 기본적인 개념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문법교육의 개선 방안을 찾기에 앞서 문법교육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개념과 용어의 혼란부터 정리하고 문법교육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문법교육 관련 용어와 개념 검토

2.1. 학교문법(school grammar)과 규범문법(standard grammar)

‘학교문법’이라는 용어의 전통적인 의미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문법에 관한 교육’으로서, 중세 이래 서양의 언어 교육에서 외국어인 그리스어, 라틴어를 가르치기 위해 구성했던 문법을 말한다. 이 용어에서 언어나 문법을 다룰 때는 문법 신성관이 그 철학적 배경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문법 신성관이란 권위를 지닌 문법 체계를 인위적 규범으로 정해 놓은 뒤 이를 위반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언어관을 말한다. 학교문법은 이러한 문법 신성관에 기반을 두고 학교에서 언어를 지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정한 문법이다. 이렇게 볼 때 현대적 의미에서의 학교문법이란 언어학자가 기술한 체계를 교육적으로 가공하여 제시한 구체적 형태물인 교육용 문법³⁾을 의미한다.

2) 국어과 교육과정의 과목명으로서의 문법.

3) 김광해(1997:16)에서는, 이론 문법이 미완성이라는 점을 전제할 때 이를 교육용으로 가공한 문법 또한 불완정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문법 연구의 한계이자 교육용 문법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규범문법’이라는 용어는 학교문법과 종종 혼동되어 사용된다. 학교문법은 전통적인 교육용 문법을 가리키는 반면, 규범문법(또는 표준 문법)은 실용적 목적을 가지는 문법으로 한 언어 사회가 언어 운용에 필요한 통일성을 꾀하는 동시에 야기될지도 모르는 언어 사용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사회적 규범으로 정리하여 놓은 문법 체계를 말한다⁴⁾. 즉, 규범문법은 실용적 목적에 따라 사회 규범적으로 정한 문법을 말한다.

2.2. 문법과 국어지식

‘문법’이라는 용어는 우선, 일반적으로 언어 사용자인 인간이 두뇌 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언어 운용 규칙의 체계를 가리킬 수 있다. 즉, 모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언어 습득 과정에서 내재화해 가는 규칙의 체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언어학이라는 학문에서는 바로 이 내재화된 규칙을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인간의 두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문법 체계의 전모를 완전히 기술해 낸다는 것은 이상일 뿐, 그 어떤 언어학자라도 정상적인 모국어 화자가 습득하여 지니고 있는 규칙의 전모, 즉 완벽한 문법을 기술해 내는 일은 불가능한 일로 보고 있다. 이론적인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문법’이라는 것은 모어 화자의 내재적 언어 규칙 체계를 기술한 것을 말한다⁵⁾.

한편, ‘국어지식’은 언어라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대상으로부터 ‘국어’, ‘한국어’, ‘우리말’, ‘우리 민족의 말과 글’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의 내용들을 말한다⁶⁾.

4) 국어교육학사전, p.775, p.140 참조.

5) 모어 화자의 내재적 문법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따금 학교 현장에서 문법교육 시간에 모국어 화자의 문법과 수업에서 자료로 활용하는 문법 내용들 사이의 괴리감으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과 의구심, 그에 따른 지루함이 발생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6) 김광해(1997), p.13 참조.

‘문법’과 ‘국어지식’의 개념을 이와 같이 이해하기로 하며, 이 개념은 다시 ‘교과로서의 문법’과 ‘교육과정상의 국어지식’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2.3. 국어지식 영역과 문법 교과

문법교육에서 ‘문법’과 ‘국어지식’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시 혼란이 야기되는 용어는, ‘교과로서의 문법’과 ‘교육과정상의 국어지식 영역’에 대한 것이다. 이 일관되지 않은 기준에 의한 용어들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국어지식 영역’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밝힌 대로 국어과의 여섯 개 영역 중의 하나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국어 관련 교수·학습 내용들 중에서 영역의 본질적 성격상 기능 영역이나 문학 영역에서 다루기 어려운 내용들이 남게 되는데, 대체로 이 내용들을 다루는 분야이다⁷⁾.

한편, 교과로서의 ‘문법’은 국민 공통 기본 『국어』 교과에서 ‘국어지식’ 영역의 학습 내용을 심화, 발전시킨 과목이면서, 동시에 일반 선택 과목인 ‘국어 생활’과도 교육 내용과 교육 목표면에서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 과목이다⁸⁾. 즉, 우리가 국어교육에서 말하는 교과목으로서의 문법은 교육 내용상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을 다루며, 구체적으로는 국어지식 영역의 심화 내용을 담은 구체물로서의 문법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의미하게 된다.

7)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김광해는 국어 지식의 대상인 국어는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온 국어 활동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화 유산이므로, 국어 문화의 전수라는 틀 속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국어 교육의 지향점을 국어 사용 기능의 신장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국어의 문화적 측면에도 지향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어 교육학사전, p.130.

8) 국어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p.266.

2.4. 우리나라의 문법교육

우리나라의 문법교육은 1963년에 공포된 학교 문법 통일안의 적용을 받아 현재까지 그것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학교 문법 통일안은 문법학자들이 통일 문법에 합의하는 성과는 이루었으나, 제4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적용된 국정 교과서에 의한 학교 문법교육이 현장으로부터 외면되는 현실에 직면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즉, 학교 문법의 통일이 문법학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교육 현장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는 국어 현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관찰하거나 그에 따른 이견을 제시해 가면서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 1996년부터 개편 시행된 제6차 교육과정이다. 이와 함께 문법 교과서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명칭은 ‘문법’으로 남아 있지만, 그 내용 체계는 확대되어 과거와 같은 통사론 위주의 문법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언어와 국어 지식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망라하여 다루게 되었다. 이러한 6차 교육과정 이후의 변화는 그간의 학교 문법교육 상황에 대한 반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앞으로 국어 교과에서 전개해야 할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좀더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연구할 것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⁹⁾.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으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국어 교육의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 영역의 내용이 이 목표의 성취에 상호보완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법’의 내용 체계는 기존의 학교 문법의 지식 체계를

9) 이와 관련하여 김광해는 국어 교육에서 문법교육을 둘러싼 연구의 최종 목표는 교육적 가치가 더 이상 의심할 여지없이 확보된 교육용 문법의 패러다임을 개발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국어교육학사전, pp.777~778 참조.

단순히 전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의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문법교육의 목표나 내용은 독자적 성격으로서가 아니라 국어교육의 종속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영역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철저하게 따르자면 문법교육은 국어 사용 능력을 위한 기능에 최대한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또한 그 내용을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교육관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이며, 문법교육에 대한 관점이 무엇이나에 따라 문법교육의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문제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3. 문법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문법교육의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문법교육 내용의 문제, 문법의 교수·학습 문제, 문법 교재 구성의 문제, 문법 관련 평가의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문법을 전공하거나 문법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문법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어느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문법교육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의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국어지식 영역에 해당하는 문법교육은 교육 내용에서부터 문제가 된다¹⁰⁾. 즉, 어떤 내용이 문법교육의 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하느냐부터 문제

10) 예컨대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의 경우는 교육 내용의 정당성 문제는 크게 거론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법교육의 경우는 교육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내용 선정의 근본적인 정당성 문제까지 거론되기도 한다.

가 된다. 교육 내용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그 문법 내용이 전통적인 이론 중심의 방식으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어 교재 측면도 다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교재 구성 방식의 문제는 교수 학습 방법의 문제와 직결된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이 해결되어도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대학입시수학능력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느냐 다루지 않느냐에 따라 다시 기본적인 교육 내용까지 영향을 받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문법교육의 문제는 내용, 교재, 교수·학습, 평가 등의 문제와 모두 맞물려 있는 것이다.

3.1. 교육 내용의 문제

교육 내용의 문제는 결국 교육과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 체계를 다루기 때문에 모든 기본 내용 요소는 교육과정부터 시작된다. 문법교육 내용에 대하여 현행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어 지식 영역의 교육과정과 그 심화 단계인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을 학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학년~10학년 국어지식 영역 교육과정 내용

학년	국어지식 영역 교육과정 내용
1학년	(1) 한글 낱자의 음가를 안다. (2) 우리말이 있음을 알고, 우리말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닌다.
2학년	(1) 자음과 모음을 구별한다. (2) 문장 안에서 꾸며 주는 말의 기능을 안다. (3) 고운 말을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3학년	(1) 자음과 모음을 구별한다. (2) 문장 안에서 꾸며 주는 말의 기능을 안다. (3) 고운 말을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학년	국어지식 영역 교육과정 내용
4학년	(1) 용언의 기본형을 안다. (2) 문장의 종류를 안다. (3) 어휘의 개념을 안다. (4) 낱말과 낱말 사이의 유의 관계, 반의 관계, 하의 관계를 안다. (5) 문화 유산인 우리말과 우리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닌다.
5학년	(1) 언어가 창조적으로 쓰임을 안다. (2) 우리말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말이 있음을 안다. (3) 문장 성분의 개념과 기능을 안다. (4)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을 안다. (5)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한다. (6) 상황에 따라 방언과 표준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6학년	(1) 언어에는 규칙이 있음을 안다. (2) 언어가 기호임을 안다. (3)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개념을 안다. (4)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를 안다. (5)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한다. (6) 상황에 따라 표준 발음으로 말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7학년	(1)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관계를 안다. (2) 음절의 개념을 안다. (3) 형태소와 낱말의 개념을 안다. (4)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의 개념을 안다. (5)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안다. (6) 담화의 구성을 안다. (7) 국어를 순화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8학년	(1) 언어의 사회성을 안다. (2) 언어의 역사성을 안다. (3) 국어의 음운 체계를 안다. (4) 국어의 조어법을 안다. (5) 관용어의 개념을 안다. (6) 발화의 기능을 안다. (7) 국어 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학년	국어지식 영역 교육과정 내용
9학년	(1)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안다. (2)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안다. (3) 품사의 분류 기준과 각 품사의 특성을 안다. (4) 각 문장 성분의 특성과 문장의 구성 원리를 안다. (5) 문장의 구조로 말미암아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현상을 안다. (6)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7)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10학년	(1) 언어와 주변 세계의 관계를 안다. (2) 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안다. (3) 문법 요소들의 기능을 안다. (4) 문장의 짜임새를 안다. (5)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 (6)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7)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8)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1학년부터 10학년 국민공통기본과정으로서의 국어지식 영역에서는 모두 54개의 내용 항목을 선정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항목 수가 많아지고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학습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4학년의 (3) ‘어휘의 개념을 안다.’와 6학년의 (1) ‘언어에는 규칙이 있음을 안다.’는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어렵다. 반면, 9학년의 (3) ‘품사의 분류 기준과 각 품사의 특성을 안다.’는 다른 내용과 수준이 맞지 않아서 학년 수준을 내려서 제시해야 할 항목이다. 이 항목들은 4학년 2학기 ‘읽기’ 교과서, 6학년 2학기 ‘말하기·듣기·쓰기’ 교과서, 그리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 국어’ 교과서에 각각 반영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양상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4학년의 (3)과 관련하여, 어휘의 개념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는 단어의 집합’이다. 관련 단원으로 제시한 4학년 2학기 셋째 마당 소단원 (2)에서는 어휘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학습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낱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어휘’라는 말이 학생들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어휘와 낱말을 초등학생 수준의 학생들에게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뿐더러 교육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6학년 국어지식 (1)을 관련 교육 과정으로 밝힌 단원은 2학기 말하기 · 듣기 · 쓰기 교과서의 둘째 마당이다. 이 단원에서는 면담에 대하여 자세하게 학습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언어의 어떤 규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6학년 학생의 수준에서 언어의 규칙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 활동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제시된 교육과정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구성할 때도 이에 대하여 모호하게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9학년의 (3)에서, 품사의 분류 기준과 각 품사의 특성을 안다는 것은 국어의 품사에 대하여 얹으로써 문장을 더 잘 이해하고 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항목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활동으로 ‘품사의 분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따라 품사를 분류한다.’와 심화 활동으로 ‘품사의 분류 기준이 품사의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이 항목을 중학교 생활국어 3학년 2학기 5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미 단어나 용언 등의 개념을 다루는 전 학년의 내용과 비교하거나 다른 국어지식과의 위계성을 고려할 때 9학년보다 선행되어야 할 내용이다.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1학년 부터 10학년까지 국어지식 영역의 교육 내용에서 난이도를 고려할 때 수정해야 할 항목들이 존재한다.

다음, 11학년에서 12학년에 해당하는 ‘문법’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2> 11학년~12학년 문법 과목 교육과정 내용

영역	문법 과목의 내용
(1) 언어와 국어	<p>(가) 언어의 본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언어의 기호적 특성을 이해한다. ② 언어의 규칙성과 체계성을 이해한다. ③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관계를 이해한다. <p>(나) 언어와 인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이해한다. ②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이해한다. ③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한다. <p>(다) 국어와 국어 문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어의 특질을 이해한다. ② 국어의 역사를 이해한다. ③ 한글의 가치를 이해한다.
(2) 국어 알기	<p>(가) 음운의 체계와 변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음성과 음운에 대하여 이해한다. ② 국어의 음운과 그 체계를 이해한다. ③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이해한다. <p>(나) 단어의 갈래와 형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어의 품사 분류와 그 기준을 이해한다. ② 국어의 단어를 형성하는 단위와 방법을 이해한다. <p>(다) 국어의 어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어 어휘의 존재 양상을 이해한다. ② 국어 어휘의 체계를 이해한다. <p>(라) 문장의 구성 요소와 짜임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어의 문장 성분과 구조를 이해한다. ② 국어 문법 요소의 기능과 그 의미를 이해한다. ③ 국어 문장의 여러 가지 짜임새를 이해한다. <p>(마) 단어의 의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미의 종류와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다. ② 의미 변화의 양상을 이해한다. <p>(바) 문장과 담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발화 행위로서의 언어 현상을 이해한다. ② 담화의 표현 및 이해에 작용하는 요소를 이해한다. ③ 담화의 구조를 이해한다.

영역	문법 과목의 내용
(3) 국어 가꾸기	<p>(가) 국어 사용의 규범</p> <p>① 표준 발음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p> <p>② 표준어와 방언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상황에 따라 바르게 사용한다.</p> <p>③ 맞춤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에서 이를 지킨다.</p> <p>(나) 정확한 국어 생활</p> <p>① 국어 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맞추어 정확하게 발음한다.</p> <p>② 조사, 어미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문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p> <p>③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한다.</p> <p>④ 논리적이며 응집성이 있는 담화를 생산한다.</p> <p>(다) 국어 사랑의 태도</p> <p>① 국어 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 양상을 파악하여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p> <p>② 국어를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p>

위의 표를 중심으로 문법의 내용 범주화 방식을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진 세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 언어와 국어’에서는 언어 일반에 대한 내용과 국어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내용의 일반적이고 거시적인 명제적 지식을 다루고 있고, ‘(2) 국어 알기’에서는 국어를 언어학적 시각에서 알아보는 내용으로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 실용성과 결합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며, ‘(3) 국어 가꾸기’에서는 국어 사용과 국어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데, 이는 태도 형성과 행동의 실천을 의도하는 실제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실상 문법 과목의 목표에서는 국어 사용 능력이라는 절차적 지식에 관련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위에서 보다시피 내용을 이루는 범주에서는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 각각 여러 내용 범주에서 모두 혼재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목표로 지향하는 바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가 일치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문법교육을 보는 관점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목표나 내용이 그에 따라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법

교육이 갖는 이원적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원적 성격이라는 것은 문법이 지식 자체로서 지도 내용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과, 문법이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사상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는 데, 즉 언어를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된다는 점, 이러한 두 가지의 다른 성격을 말한다. 즉, 문법교육은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또한 이 내용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문법교육의 교수 · 학습 방법과 교재 구성에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음은 국어지식 영역과 문법의 교육과정 내용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11학년, 12학년에 해당하는 문법의 내용이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국어지식 영역의 어떠한 내용 항목과 관련되어 있는지 위계성을 고려하며 살펴보기로 하자.

<표 3> 국어지식 영역과 문법의 관련 교육과정 비교

학 년	국어지식 영역 교육과정 내용	문법 과목 관련 내용
4	(3)어휘의 개념을 안다.	(2)(다) ①국어 어휘의 존재 양상을 이해한다. (2)(다) ②국어 어휘의 체계를 이해한다.
5	(4)표준어와 방언의 개념을 안다.	(3)(가) ②표준어와 방언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상황에 따라 바르게 사용한다.
6	(1)언어에는 규칙이 있음을 안다.	(1)(가) ②언어의 규칙성과 체계성을 이해한다.
	(2)언어가 기호임을 안다.	(1)(가) ①언어의 기호적 특성을 이해한다.
	(5)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한다.	(3)(가) ①표준 발음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7	(1)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관계를 안다.	(1)(가) ③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관계를 이해한다.
8	(1)언어의 사회성을 안다.	(1)(나) ②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이해한다.
	(3)국어의 음운 체계를 안다.	(2)(가) ②음성과 음운에 대하여 이해한다.
		(2)(가) ③국어의 음운과 그 체계를 이해한다.
	(4)국어의 조어법을 안다.	(2)(나) ②국어의 단어를 형성하는 단위와 방법을 이해한다.

	(6)발화의 기능을 안다.	(2)(바) ①발화 행위로서의 언어 현상을 이해한다. (2)(바) ②담화의 표현 및 이해에 작용하는 요소를 이해한다. (2)(바) ③담화의 구조를 이해한다.
	(7)국어 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3)(다) ①국어 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 양상을 파악하여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9	(2)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안다.	(2)(가) ③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이해한다.
	(3)품사의 분류 기준과 각 품사의 특성을 안다.	(2)(나) ①국어의 품사 분류와 그 규칙을 이해한다. (2)(나) ②국어의 단어를 형성하는 단위와 방법을 이해한다.
	(4)각 문장 성분의 특성과 문장의 구성 원리를 안다.	(2)(라) ①국어의 문장 성분과 구조를 이해한다.
	(6)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3)(가) ③맞춤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에서 이를 지킨다.
	(7)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3)(가) ③맞춤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에서 이를 지킨다.
10	(1)언어와 주변 세계의 관계를 안다.	(1)(나) ③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한다.
	(2)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안다.	(1)(다) ②국어의 역사를 이해한다.
	(3)문법 요소들의 기능을 안다.	(2)(라) ②국어 문법 요소의 기능과 그 의미를 이해한다.
	(4)문장의 짜임새를 안다.	(2)(라) ③국어 문장의 여러 가지 짜임새를 이해한다.
	(5)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	(2)(바) ②담화의 표현 및 이해에 작용하는 요소를 이해한다.
	(6)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3)(나) ②조사, 어미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문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8)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3)(다) ②국어를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11학년과 12학년의 심화 수준의 내용과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기본 수준의 내용을 비교할 때, 다소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기본 수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국어지식 영역과 심화 수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문법 내용을 비교해 보면, 후자에 그대로 대응하는 전자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4학년 단계부터 관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심화에서 다루는 내용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문법교육 내용의 위계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문제가 된다. 중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7학년부터 10학년과 11, 12학년의 간극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초등학교 수준인 1학년부터 6학년까지와 11, 12학년의 간극은 매우 큰 편이다. 그런데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심화 수준인 11, 12학년의 일부 내용이 4, 5, 6학년에 거의 그대로 제시되어 있다. 물론 교육 내용이 교재에 반영될 때는 난이도와 위계성을 고려하여 재구성되는 것이 일반 원칙이지만, 내용 자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성취 목표에 이르지 못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4, 5, 6학년의 국어지식 내용이 11, 12학년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은 문법교육 내용의 위계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 내용 자체의 수준과 교재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법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의 정교한 재검토와 이에 따른 재진술이 요구된다.

3.2. 교수 · 학습 전략과 교재의 구성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과목에 대한 교수 · 학습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¹¹⁾.

- 가. 규범적 개념 자체를 국어 탐구의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 발견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해 주는 방향의 교수 · 학습 전략
- 나. 교수 · 학습 활동의 용례는 인위적인 자료가 아니라 실제 문장, 유명 작

1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p.266 참조.

품, 신문 기사, 방송 대본 등 실제 언어 장면에서 나타난 사례에서 듣다.
 다. 문장의 분석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문장을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직접 작문을 하거나 작문한 문장을 고치는 활동을 통해서 문법 과목의
 여러 내용이 자연스럽게 학습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강조하고 있는 문법의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은, 문법의 교수·학습에서 지식과 개념을 탐구의 대상으로 전환한다는 점, 실제 언어의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 문장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언어 연구와 같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나 실제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법교육에서 문법이 갖는 지식 자체의 성격과 언어 사용을 위한 과정적이고 절차적인 지식으로서의 성격, 모두를 인정할 때 내용과 방법에서 다양한 변화가 요구된다. 후자의 관점에서는 문법이 국어교육에서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재구조화하고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입장에서 볼 때 문법교육의 핵심은 자동화된 능력이 다른 여러 상황에 전이되어 사용되거나 응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어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전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자의 관점에서 요구된, 명제적이고 선언적인 지식을 학습한 사람이 실제 국어 사용 국면에서 선언적 지식을 활용해야 할 경우에 관련 지식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이러한 지식은 문제 해결 맥락에서 지도해야 한다¹²⁾.

문법교육관이 어떠하며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이나 교재의 구성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지식 습득을 위한 단원일 경우에는 학습하여야 할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만으로 가능할 것이며, 탐구 능력 신장을 위한 단원일 경우에는 자료 제시, 자료 처리, 가설 설정, 가설 검증, 결론 도출 등의 단계로 프로그램화된 단계에 따라 단

12) 송현정(2004), p.72, 최영환(2003), p.111 참조.

원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연습 과정을 충분히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가치 형성과 생각할 거리를 담고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토의 · 토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¹³⁾.

교재 측면에서 볼 때, 문법교육은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 서로 다른 교재의 구성 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문법교육을 독자적 성격과 종속적 성격을 모두 인정한다면¹⁴⁾, 교재의 성격도 분리해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독본 교재와 실습 교재 두 종류로 구성하여 국어 지식의 내용과 사용의 국어 문제들을 각기 다른 교재에 담는 것이 문법교육에 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다¹⁵⁾.

3.3. 평가의 문제

현행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법 관련 평가 목표를 살펴보고, 이

13) 국어교육학 사전, p.132.

14) 이는 국어지식 교육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는 것과 관련되는 문제로, 다음을 고려하여 함께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첫째, 국어지식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국어지식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 대한 것이다. 둘째, 국어교육의 목표를 국어 사용 기능 신장으로 전제하고, 이에 도움을 주는 한에서만 국어지식 영역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종속적 관점에 대한 것이다. 셋째,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교수 · 학습될 필요가 있다는 독자적 입장에 대한 것이다. 넷째, 국어과라는 교과 명칭을 기능 요소에만 한정짓지 말고 기능 신장에 도움을 주는 요소와 문화 요소를 포괄하여 국어지식의 교육적 가치를 찾는 포괄적 입장으로, 셋째 입장과 같이 국어지식의 독자적 관점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미 밝혔듯이(송현정, 2004), 문법교육이 종속적 관점과 독자적 관점 모두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15) 이렇게 본다면 문법 관련 교재 개발의 기본적인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할 것이다. 교재 개발의 기본적인 문제를 재검토하기 어렵다면, 현재의 교재에서 학습 활동 제시 방식의 대폭적인 변화 등이 요구된다.

내용과 관련한 문제점과 전반적인 수정 방향을 검토하도록 한다.

가. ‘문법’ 과목의 평가 목표와 내용은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와 영역별 내용을 근거로 설정한다.

나. ‘문법’ 과목의 평가에서는 국어에 대한 단편적 지식보다는 언어와 국어에 대한 일반적 이해의 수준 및 국어의 주요 현상을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에 중점을 둔다.

다. 학습한 지식을 활용하여 실제의 국어 생활에서 바르지 못한 문장을 판별하는 능력과 스스로 바른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라. ‘문법’ 과목 학습이 규칙이나 원리의 탐구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능력을 평가한다.

- (1) 규칙을 도출하는 데 적합한 언어 자료를 선정하는 능력
- (2) 합리적 과정에 따라 규칙이나 원리를 찾아 내는 능력
- (3) 도출된 규칙이나 원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능력

마. ‘문법’ 과목의 교수·학습에서 국어 가꾸기의 태도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한다.

- (1) 오늘날 국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문제 현상을 파악하는 태도
- (2) 문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실천하는 태도
- (3) 국어의 보존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

바. 평가의 내용이 문법의 어느 일부 현상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전반적인 영역을 평가한다.

사. ‘문법’ 과목 평가의 결과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판단하고, 교수·학습 방법과 내용을 개선하는 데 적절히 활용한다. 또, 학습자가 국어 생활을 바르게 영위하도록 지도하는 데에도 적절히 활용한다.

문법교육의 개선 방향을 논함에 있어, 현재의 평가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가’에 대하여, 교육과정에서 교육의 목표나 평가의 원칙을 찾아야 한다는 교육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이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항목이다.

‘나’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평가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의 평가에서도 이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문법 과목은 고등학교에서 심화 선택 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목표에 합당한 바람직한 평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에 대하여, 고등학교 수준의 문법 과목의 평가 내용으로는 수준이 낮은 평가 사항이다. 물론 실제 의미를 적확하게 전달하는 표현의 문장으로서의 교정이 반드시 필요한 평가 항목이지만, 10학년 이상의 수준에서는 텍스트의 맥락을 고려한 표현의 문법이 평가 항목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즉, 문장 고등학교 문법 과목에서는 문장 차원이 아니라 텍스트 차원에서 문단의 결속 구조를 고려한 문법적 바른 글쓰기가 평가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라’에 대하여, 규칙을 생각하고 탐구하는 문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주의할 것은 문법의 목표와 내용의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여 일관된 방향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에 대하여, 이 평가 항목은 정의적 태도에 관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문법 자체를 아는 것보다 ‘문법 의식’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바’에 대하여, 일부 현상에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인 영역을 평가한다는 것은 굳이 평가 항목에서 제시하지 않아도 될 기본 사항이다.

‘사’에 대하여, 이 내용은 문법에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모든 영역, 교과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다만, 문법과 같은 경우 평가의 결과가 ‘맞다, 아니다’로 지적되는 것과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로 제시되는 것의 차이를 인식하고, 교사가 평가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그에 대한 안내가 중요하다.

4. 결론 및 제언

문법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념의 불명료성, 교육 목표의 혼란, 교육 내용의 혼재 등 모든 것이 섞여 있는 데서 온다고 볼 수 있다. 문법교육 관점의 정립, 일관된 목표 설정, 목표에 따르는 문법 교재의 효율적 구성 등이 이루어져야 문법교육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문법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국어학자와 국어교육학자가 교육적 관점에서 정할 내용의 문제이다. 그러나 문법이 교육 내용으로 들어올 때는 철저히 교육적 관점에서 이를 수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Rob Batatone(1974)은 문법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1) 결과로서의 문법교육(teaching grammar as product), 2) 과정으로서의 문법교육(teaching grammar as process), 3) 기능으로서의 문법교육(teaching grammar as skill)이 그것이다. 1)의 경우, 언어의 특정 형태와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학습자가 관심을 가지거나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시제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 교육에서 줄 수 있는 두 가지 특성은, 새로운 언어적 지식을 알게 된다는 점과 학습자의 언어 체계 지식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는 학습자에게 자신의 지식을 절차화하도록 하여 언어 사용 기능을 연습하도록 해 준다. 3)은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에 문법을 활용하도록 주의 깊게 안내한다. 문법교육이 갖는 이 세 가지 방향은 모두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지도되어야 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교육을 고려한 우리의 문법은 삶 속에서의 문법,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문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어 문법이 한국인 모어 화자로서 알아야 할 국어 규칙과 국어에 대한 언어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학습자 발달 수준에 따른 실태 조사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학습자들의 문법 지식 보유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며, 이에 따라 교육적으로 성취해야 할 문법의 목표 수준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문법 관련 영역에서 국어과의 다른 영역보다 더 중요시되는 사항은, 문법에 대한 정기적인 교사 연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연수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문법 이론을 알게 되고 학습자들의 문법적 능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교수 학습 방법의 탐색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핵심어: 학교문법, 규범문법, 문법, 국어지식, 문법교육

참고문헌

- 교육부(1997),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 5]), 교육부.
- 교육부(1997),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Ⅲ)(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교육부.
- 교육부(1997),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Ⅱ)(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교육부.
- 교육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교육부.
- 김광해(1997),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3), 문법 교과서, 두산.
- 송현정(2002), [국어지식 영역의 교과서 제시 방식에 관한 분석 - 제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과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09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111~146쪽.
- 송현정(2004), [국어지식 교육과 사고력의 관계에 대한 일고], {한국초등

- 국어교육} 24,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67~95쪽.
- 이성영(1995), [언어 지식 지도의 필요성과 방향], {국어교육연구소 학술 발표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4~23쪽.
- 이용주(1993), 한국어의 의미와 문법 I -기본적인 관점-, 삼지원.
- 이충우(1997), [국어 교육문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7, 국어교육학회.
- 최영환(2003), 국어교육학의 지향, 삼지원.
- Halliday, M.A.K., A. McIntosh, and P. Stevens(1964), The Linguistic Sciences and Language Teaching, Longman.
- Hirst, P. H.(1974), Knowledge and the Curriculum,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Ltd.
- Lana J. White, Bruce Maylath, Anthony Adams and Michel Couzijn.
Edited by(2000), Language Awareness, Amsterdam University Press.
- Rob Batatone(1974), Language Teaching : A scheme for Teacher Education, "Grammar", Editors : C.N.Candlin and H.G.Widdowson, Oxford University Press.

송현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소 : 직장 (110-230) 서울 종로구 삼청동 25-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택 (151-059) 서울 관악구 봉천9동 635-512

전화 : 3704-3594, 011-9942-1001

전자우편 : shj@kice.re.kr

Abstract**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Grammar Education**

Song, Hyun-jung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Resercher)

This study aimed to provide improvement reform measure on the Korean knowledge or grammar Education. We have defined concept in order to clear a term about 'school grammar, standard grammar, grammar, korean knowledge and knowledge(or grammar) education.' We have to analyze critically curriculum and textbooks first, and then have to search a solution of the grammar education probl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struction contents, teaching-learning methods, textbooks and evaluation for solve this problem.

The following shows critical analysis and improvement reform measure on the korean knowledge or grammar education.

First, it is a contents problems. We examined korean curriculum grade 1-10, grade 11 and 12 in connection with item difficulty and grade of rank.

Second, it is a teaching-learning methods and textbooks construction problems. It suggest to change teaching-learning methods in accordance with knowledge property, and to reconstruct textbooks in accordance with grammar education' viewpoint.

Third, it is a evaluation problems. We have to analyze curriculum evaluation goals, and then have to modify properly.

We like to focus on the grammar education using actually and being

really our language society.

Key Words: school grammar, standard grammar, grammar, korean knowledge,
grammar education